



# 군종주보

2019년 12월 29일(제962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기장 성회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하느님, 나의 아버지”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은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식의 운명과 한 몸이 됩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지만, 그 기쁨의 대가는 평생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있어 자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눈앞에 두고 지켜보고 싶은 보물이며 동시에 애물단지인 듯합니다.

적인 문제들은 그 기쁨을 잊게 할 만큼 힘들고 고단합니다. 자식을 보는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때 하느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자신이 돌봐주는 것보다는 더 잘 봐주시지 않을까요? 자식을 자신 안으로 끌어안으면 애물단지가 되겠지만 하느님께 맡긴다면 더 귀한 보물로 가꾸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의 복음을 통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루시고 돌보시는지, 즉 하느님의 섭리로 동정녀가 아들을 잉태하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그 잉태가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가장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복음은 그렇게 이루신 가정을 당신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시는데, 피신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먼저 천사가 가장인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받은 메시지를 실행한 뒤, 하느님의 말씀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가정이었기에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모습. 이런 모습은 그분이 직접 이 가정의 실질적 가장이 되어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씀은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느님이 자녀를 잘 이끌어주실 것이란 믿음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자녀들을 당신의 좋으신 길로 이끌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존중해주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준다면, 자녀들도 하느님의 은총 아래서 성장해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모님이 되어주시는 참된 성가정 안에서 은총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섭리를 듣는 경청의 마음과 그 섭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청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송재원(인드레이) 신부  
성요셉(의무사) 성당 주임

자식을 얻은 기쁨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이지만, 그 이후 우리들에게 닥치는 현실

- 제 1 특 시**      집회 3,2-6.12-14
-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제 2 특 시**      콜로 3,12-21
- 복음    환    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마태 2,13-15.19-23
- 영    성    제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 이정식 요한



성인명: 이정식 요한 (李廷植 John)  
신분: 회장, 장교, 순교자  
활동연도: 1795-1868년

이정식(李廷植) 요한(John)은 경상도 동래 북문 밖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무과에 급제한 뒤 동래의 장교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친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나이 59세 때에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한 뒤로는 첩을 내보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 요한은 이후 가족을 열심히 권면하여 입교시켰으며, 누구보다 계명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다. 화려한 의복을 피하고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였으며, 애국에 힘쓰면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작은 방을 만들어 십자가상과 상분을 걸어 놓고 묵상과 교리 공부에 열중하였다. 이러한 열심 때문에 이 요한은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언제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가족과 함께 기장과 경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울산 수박골로 피신하여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1868년 동래 교우들의 문초 과정에서 이 요한 회장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동래 포졸들은 그가 사는 곳을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그의 거주지를 찾아내 그곳에 있던 교우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그때 이 요한의 아들 이월주 프란치스코와 조카인 이삼근 베드로는 이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포졸들 앞으로 나와 자수하였다. 이내 동래로 압송된 이 요한 회장은 그곳에서 대자 양재현 마르티노를 만나 서로 위로하며 신앙을 굳게 지키자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문초를 받게 되자, 이 요한은 천주교 신자임을 분명히 하고는 많은 교우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시인하였다. 그러나 교우들이 사는 곳만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또한 형벌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당하였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이 요한과 동료들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며 47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신앙을 버림으로써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 동래 관장은 마침내 사형을 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옥에 있는 신자들을 끌어내어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로 압송하였다. 이때 사형을 맡은 군사들이 부자(父子)를 한날에 죽이는 것을 꺼렸지만, 동래 관장은 동시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요한은 1868년 9월 참수형을 당하기에 앞서 삼중 기도를 바치고 십자 성호를 그은 다음에 칼을 받았다. 당시 이정식 요한의 나이는 73세였다.

##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별밤에

잠시, 쉬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
혹여 하는 마음에.	그런데 그날처럼
다시 일어나, 경계를 합니다.	별이 참 곱습니다.
가족들 지친 피난길 증 눈이라도 붙이라고.	



상화이야기

이집트로 피신 중 쉬시는 성모님과 예수님



오늘 복음말씀에서 요셉은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헤로데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듣고,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떠난다.

중세의 전설에 따르면, 오랜 여행길에 음식이 없어 매우 배가 고팠던 성모님을 위해 요셉 성인은 대추야자 나무열매를 따려고 했으나 너무 높아 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나무에게 가지를 낮출 것을 명하셨다고 한다.

제라드 디비드, 1510년경 제작

파블 위 유희, 41.9x42.2cm

워싱턴 D.C. 나셔널 갤러리, 미국

그림의 후면 우측에는 긴 가지를 들고 나무 열매를 따려는 요셉 성인이, 좌측에는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신 나귀가 보이고, 중앙에는 성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열매를 따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 보인다.(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특히 갓 출산 후에 여행하는 수고로움을 모든 부모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그림은,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간의 무언가 알 수 없는 평화로운 고요함이 마음을 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많이 부산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구할 수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 위한 미사 - 생기장 녹일: 해병대요람 인영근 신부

◆ 교구장 통장

- 독수리(1공수여단) 성당 성가정 축일 미사  
    때: 12월 29일(주일) 10:30
- 종무식 미사  
    때·곳: 12월 31일(화) 11:30, 교구청 1층 소성당
- 시무식 미사  
    때·곳: 1월 2일(목) 10:00, 교구청 1층 소성당

◆ 2020년 제3회 교구청년대회

- 일정: 2020년 2월 17일(월)~21일(금)
- 대상: 교구 내 20세~35세 청년  
    (군 가족, 현역 병사 및 간부)
- 장소: 제주도 성지순례
- 참가비: 15만원
- 문의: 군중교구 교육국(02-749-1921, 내선 4번)
- 카카오톡: 천주교 군중교구청 교육국(@miled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취를 따르”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